

'경선 불사' 더민주 국회의장 경쟁 치열

문화상 "친노 아냐"

이석현, '무계과 중도성향'

정세균, 대선 후보 도전 뜻도

박병석, 충청권 내세워

복병 이해찬, 복당 불투명

20대 총선 결과 원내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 대선의원들의 물밑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민주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6선의 문화상·이석현·정세균 의원과 5선의 박병석 의원 등이다. 이들은 관행대로 내심 합의 추대를 원하면서도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먼저 문화상 의원은 "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으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1명이라도 경쟁자가 생기면 경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내 범주류에 속한 친노무현계란 견제에는 "아직도 나를 친노로 보는 사람이 있다. 나는 계파에 소속되거나 모임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 의원의 국회의장 지원 요청에 "친노라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수행 중인 이석현 의원은 '무계과 중도성향'임을 강조하며 대선 전략 차원에서 자신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화상 의원은 친노로,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로 분류된다. 대선에서 중도적인 국민의 표를 얻으려면 나 같은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우는 게 다양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추대해준다면 고맙지만 경선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과 친분이 깊다.

정세균 의원은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도전이나 내년 대선 후보 도전 가능성도 함께 열었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는 공을 세웠다. 정은 근거로 소속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 의원들이 상당수 낙선한 게 부담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던 박병석 의원도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 초선의원들을 만나 설득 중인 그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충청권(대전 서갑)인 자신을 국회의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민주의 충청권 구애 차원에서 보면 나름 경쟁력이 있기는 하다.

공천달락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7선 이해찬 의원도 야권 최다선이라 국회

의장 후보로 꼽히지만 복당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친노의 좌장 격이란 점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리 다가온 카드는 아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2명)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의장을 더민주가 차지하면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가지게 된다.

이처럼 국회법 조항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자유투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원내 제1당에서 선수(選數)가 높은 원로급 의원 가운데 1명을 의장 후보로 추대하면 국회의원들은 관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왔다. 부의장 선거의 경우도 원내 1당과 2당이 당내 경선이나 추대를 통해 후보를 1명씩 내면 찬성표를 던지는 게 관례였다. /박용주 기자

국민의당 도의원들 제 목소리 낼까?

국민의당 소속 8명의 도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까? 과연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의회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20대 총선 성적표와 함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6명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내달 의원 총회 등 원 구성할 때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일당 독주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도의회 운영과 도정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본회의 통과 사항인지 아닌지 목소리를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쥐게 됐다.

하지만 속제는 남아 있다.

급하게 만든 정당이고 편중된 지역에서 탈당한 도의원들이 속해 있다보니 다양한 지역 민심을 청취하기가 힘들고 향후 의정활동이나 선거과정 등에서 빠져 거리는 모습도 염려된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전에 대해서 발목 잡는 일에 열을 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28명 도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릴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할 공산이 크고 그러다보면 양당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이런 갈등을 얼마나 봉합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로 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은 이번 다당 체제가 도의회에게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는데에 이견이 없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 경고를 준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이 몸집은 작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과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호흡을 잘 맞춘다면 도정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은 최진호, 김중철, 이상일, 최인정, 장학수, 양용호, 박재완 의원 등이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당선인, 5·18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상호 원내대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부르겠다" ... 호남지역 민심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당선인 약 100명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광주 5·18민주묘지에 도착해 추모탑 앞에서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방명록 '광주의 혼을 담아 오월에서 통일로'란 글을 남겼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당선인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 앞으로 이동했다.

우 원내대표와 이석현 국회부의장, 전남지역의 유일한 당선인인 이계호 의원이 앞장섰고 다른 당선인들이 뒤를 따랐다.

두 열사의 사연을 들은 우 원내대표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닦았고, 묘비 위 영정사진의 먼지도 닦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한번 부르죠. 정부가 기념식 공식노래로 지정할 안 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부르겠다"며 제창을 권했고 당선인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더민주 당선인들이 5·18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1987년 6월항쟁의 주역으로 학생운동 당시 이 노래를 앞장서 불렀던 우 원내대표였던 탓에 당선인들의 첫 제창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는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의 기세에 놀려 단 3석, 특히 전남에서 1석만을 획득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묘역에 참배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더민주가 호남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며 호남 민심 회복 시도에 힘을 실었다.

더민주의 이날 논평에서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이자 정신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도 못하게 하고 지정곡으로

정하지 않는 처사는 이 정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당선인은 진영·김태년·김두관·표창원·기동민·이재정 등 몇몇 당선인들과 전영진 열사의 묘를 별도로 참배하기도 했다.

송 당선인은 광주 대동고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전 열사는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며 "원래 저같이 말도 없고 조용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시민군에 참여하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죽었고 저는 안죽고 살아남았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부끄럽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박용주 기자

김관영, "국회의장·법사위장 당 달라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국회가 대정부부를 향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과 법사위위원장을 배출하는 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2일 중앙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배출을 했고 법사위위원장은 그 다음 제1당이 가져온 것이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법사위위원장을 국민의당이 맡아야 한다면 과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법정기한인 6월7일까지 반드시 국회의장과 삼임위원장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최은희 의원, 일본 아키타현 의원 맞아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12일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한 일본 아키타현의 시민당 소속 현의원들을 맞아 지방의회 교류방안과 한일 문화교류방안을 모색했다.

한일문화교류의 민간 가교역할에 힘쓰고 있는 카야노마 노리코 교수의 초청으로 전라북도도를 방문하게 됐다.

이날 이시타 히로시와 이시카와 히토미 현의원은 완주군의 기능인 육성현장을 둘러본 후 전북도의회를 찾았다.

최은희 의원은 이들을 맞이한 이유는 (사)한일문화교류센터 이사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아키타현의원들과 함께 양 지방의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지방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일본과 지역단위의 교류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 간 교류 물꼬를 트고 나아가서 지방의회간 상호 교류와 소통이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창당 100일 시험대 선 국민의당

연정론·국회의장 저울질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박지원 "빨리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야 한다" 사과
지도부·소속의원 최전방 부대 방문 지지율 회복 기대
당직 인선·삼성차 유치 등 당내 갈등상황 해결해야

제3정당 체제 정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국민의당이 창당할 지 100일이 지났다. 굳건한 양당제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우려를 안고 출발한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을 통해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호남에서 일으킨 '녹색바람'을 통해 38석을 획득,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부터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이 최근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을 비롯해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듯한 태도에서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총선 승리에 도취돼 너무 일찍 삼계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난 2~6일(5일 제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21.8%에 그쳤다. 전주 대비 3.1%p 하락한 끝에 0.2%p 오른 더민주(27.8%)에 이어 3

위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전주 50.6%에서 12.5%p 폭락한 38.1%를 기록, 더민주(34.5%)와 오차범위(±6.8%p)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2~4일 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이 48%에서 40%로 추락했다. 반면 더민주는 23%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줄곧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렸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리얼미터의 2~6일 조사에서 대선 지지도 17.2%에 그친 안 대표는 더민주 문 전 대표(27.1%)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상황이 이렇자 연정론을 거론했던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대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오만함으로 보였다면 우리 잘못이다. 빨리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제되지 않은 돌출 발언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국민의당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

했다.

안보 이슈를 연결 고리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전후로 대북 긴장감이 높아진 시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전방부대의 방문은 당선인들의 정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정"이라며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면 전환을 이벤트 외에 잡목에 있는 당내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사무총장직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호남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호남 의원들의 주장을 뿌리치고 자신의 측근을 배치했다. 이태규·박선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물러난 전략홍보부장과 사무총장 자리를 각각 문병호·김영환 의원으로 각각 채웠다.

이밖에도 '삼성 미래차산업 핵심사업부' 광주 유치 협력을 둘러싸고 안 대표와 호남 의원들 사이의 균열모습을 보이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성주 기자

김종인 "지금부터 경제플랜 짜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지금부터 집권을 위한 경제플랜을 제대로 짜서 집권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선인들에게 "우리가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다'라고 했으니 우리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의회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집약해야 한다"며 "그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게 되면 집권 초기부터 바로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주 기자